

## 어명소 제2차관 ‘한-EU 지속가능 미래교통 위해 협력 높여야’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15일 포시즌스호텔(서울)에서 헨릭 홀로레이(Henrik Hololei)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과 제1차 한-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가졌다.
  - 한-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는 ‘20년 양측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정책협력 회의체로서, 코로나-19 팬데믹으로 지속 연기되어 오던 중 올해 EU 대표단의 내한을 계기로 처음 열리게 되었다.
-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전 세계적 합의가 이뤄진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·수소차 보급 전략, ICT 융복합 등에 따라 등장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전략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였다.
  - 아울러, 항공·해운 분야의 탄소감축 전략, 항공교통량 관리방안, 철도 건설·운영 정책과 경험과 함께,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국제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, 포스트코로나 교통산업의 회복방안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하였다.
- 어명소 제2차관은 “친환경 정보통신기술(ICT)이 급격히 발전하고, 민간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모빌리티 혁명에 따라 교통 정책 환경이 전례없이 변화하고 있다”면서,
  - “한-EU 간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교통 현안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”고 제안하였다.
- 헨릭 홀로레이 교통총국장은 “공동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한-EU 양측 간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통해, 한국과 EU 회원국의 탄소중립, 포스트 코로나 후 교통산업 재건 등을 지속 공유해나가자”고 화답하였다.

2022. 9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